

한국문화교육을 위한 고전시가 작품의 유용성*

- 결혼이주여성과 '시집살이' 유형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윤섭**

<차례>

1. 서론: 한국문화교육과 고전시가
2. 한국문화교육의 현황과 비판적 검토
3. 상호문화교육과 고전시가: '시집살이' 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4. 결론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잠재적 청자로 설정하여 '시집살이'와 관련된 고전시가 작품들이 한국문화교육의 현장에서 유의미한 소재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시집살이의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일 뿐만 아니라 시집살이라는 한국적 가족제도의 오래된 연원을 보여준 후 그들에게 이해와 동의의 일단을 구하는 데에도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한국문화교육의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나름의 대안으로 '상호문화교육'을 제안하였다. 3장에서는 상호문화교육의 텍스트로 '시집살이'와 관련된 고전시가 작품들을 일별하고, 이를 통해 한국문화교육과 고전시가지작품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모색하였다.

* 이 논문은 한국고전연구학회 제85차 학술발표회(2014.02.11)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당시 지정 질의를 맡아 주신 홍익대 국어교육과의 송지연 선생님께서 고전시가와 문학교육을 넘나드는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발표문에 드러난 수다한 문제들을 바로잡아 주셨다. 또한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개념, 구도, 논리적 연계 등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까지 소상히 짚어 주셨다. 이러한 문제들이 본고 한편을 통해 온전히 해결되기는 어려울 터이나, 항상 '念頭'에 두면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당시 다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 지면을 빌어 전해드린다.

** 충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주제어 한국문화교육, 고전시가, 상호문화교육, 결혼이주여성, 시집살이

1. 서론: 한국문화교육과 고전시가

문학 텍스트를 재료로 하여 논문을 쓰면서 ‘유용성’이라는 껌껌한 어휘를 제목으로 내세우는 것이 필자 스스로에게도 상당히 낯설다. 문학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혹자의 시선에선 ‘무용’한 것으로 치부되는 요즈음, 공적인 지면을 통해 그것의 유용성을 말하는 것이 어딘지 모르게 ‘그래야만 한다’는 식의 강박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살아온 환경과 문화가 전혀 다른 외국인을 대상으로, 그것도 고전문학을 교육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시도 자체의 순수성을 의심받을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점에서 “현대의 한국사회를 이해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전근대의 산물인 고전문학작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와 같은 불특정 다수의 회의적 시선에 고전문학을 전공하는 필자조차도 어느 정도는 수궁이 간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전문학’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의 현장에서 전혀 무용한 것인가? 이 거창한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변을 마련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결혼이주여성’과 ‘시집살이’ 유형의 작품들을 범례적 일반형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한국문화’나 ‘고전시가’와 같은 큰 범주의 개념들은 적절한 맥락 안에서 통어되지 않을 경우 그것이 지닌 특유의 설명력은 상실되기 쉽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육에서 상기한 두 가지 개념들은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 것’이라는 논리 하에 교육의 당위적인 대상으로 간주되곤 하지만, 교육의 목적과 학습자의 조건이 상이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해당 범주의 어떤 것들에 주안을 둘 것인지의 여

부가 보다 명확히 제시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고전’과 ‘시’가 그것과 유사한 선상에 위치해 있는 인접 영역과 어떠한 변별점을 갖는가에 대한 의문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분명히 정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문화’의 경우 한국이라는 지리적 영토 내에서 한국인이라는 상상의 공동체가 전근대 시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루어낸 유무형의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고전’으로 취급되는 학문 분과가 투입할 수 있는 지점은 비교적 현대적 현상으로 일컬어지는 어떤 문화의 근원이 전근대의 어디쯤부터 형성되어 왔음을 전제할 때에 비로소 마련된다. 한국문화교육이 ‘보다 효율적인 한국에 대한 이해’ 내지는 ‘좀 더 안정적인 한국에의 안착’과 같이 지극히 현실적인 목적에 봉사할 수 있을 때야 전근대의 어떤 것들은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올 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일환으로 한국문화를 교육한다고 할 때 그 교육의 범주는 ‘한국’이라는 고유명사와 연관된 ‘모든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현대 한국인의 문화라고 인식하는 것 중 그것의 기원이 과거의 어딘가로 소급될 수 있는 것, 그리하여 현대의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 모종의 유의함을 담보할 수 있는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¹⁾

그렇다면 고전시가는 그것과 유사한 평면 위에 놓여 있는 고전서사와 비교하여 어떠한 변별점을 지니는가?²⁾ 선불리 답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필자는 우선 효율성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싶다.³⁾ 첫째, 한국어 자체에 대

1) 최준식, 『문화를 가르친다는 것은?』, 『한국언어문화학』 9집 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2, 275쪽.

2) 이에 대해서는 이정원, 「<심청전>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한국고전연구』 2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3, 21~46쪽.

3) 한국문화교육에서 고전시가작품들이 기능할 수 있는 유의미한 지점들을 논의하기

한 언어 능력은 한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일 터, 하나의 단위 과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언어 정보의 양이 지나치게 많다면 이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는 학습자들에게는 버거울 수 있다. 그러나 고전시가 장르는 기본적으로 단형이기 때문에 한 편의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처리해야 할 언어의 양이 얼마 되지 않는다. 둘째, 고전시가 장르는 그것이 노랫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유나 상징 등 복잡한 문학적 기법이나 화려한 수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시집 간 여성의 일상을 다룬 ‘시집살이’ 관련 작품들은 더더욱 그러하다. 셋째, 고전시가 장르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세세한 설명보다는 바로 그 상황에 직면한 시적 화자의 감정 내지는 정서의 전달에 주된 목적을 둔다. 따라서 작품의 수용자가 시적 화자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거나 유사한 경험을 간직하고 있다면 언어적인 능력이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작품을 이해하는 데 수월하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본 논문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잠재적 청자로 설정하여 ‘시집살이’와 관련된 고전시가 작품들이 한국문화교육의 현장에서 유의미한 소재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시집살이의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점⁴⁾에서

위해 고전시가작품들에 내재한 특유의 교육적 가치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은 기본적으로 옳다.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러하듯) ‘가치’라는 말의 함의를 국어 내지는 문학교과서의 그것과 같이 “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또는 목표가 되는 진, 선, 미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과 같이 협소하게 사용할 경우 존재하는 모든 문학작품 중 상기한 (교육적) 가치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작품들은 인간의 보편적 측면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이라는 개별적 국가에 대한 이해’라는 현실적 목적에 기여하기가 쉽지 않을 우려가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읽고 이해하는 데에 쉽고 간명하다.’는 효율성 역시 가치의 범주에 귀속될 수 있을 터, 본고에서 고전시가 작품, 그 중에서도 시집살이를 다룬 텍스트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그 효율성과 현실성을 적절히 담보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4) 이에 대해서는 박선옥, 『여성결혼이민자 수기(手記)에 나타난 문화 변용 양상 연구』,

시의적일 뿐만 아니라 시집살이라는 한국적 가족제도의 오래된 연원을 보여준 후 그들에게 이해와 동의의 일단을 구하는 데에도 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한국문화교육의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나름의 대안으로 ‘상호문화교육’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⁵⁾ 3장에서는 상호문화교육의 텍스트로 ‘시집살이’와 관련된 고전시가 작품들을 일별하고, 이를 통해 한국문화교육과 고전시가작품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2. 한국문화교육의 현황과 비판적 검토

① 재래의 논의에서 지적한 바⁶⁾와 같이 한국어교육이 비단 언어에 대한 교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부정할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잡은 듯하다. 그리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자들에 의해 한국문화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수요목이 개발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어교재가 지속적으로 출간되어 어학 위주의 교육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내게 된 것도 분명해 보인다. 최근 들어 일련의

『다문화콘텐츠연구』 11집,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1, 123쪽; 김연수·박지영,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경험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0집, 2010, 282~283쪽 참조

5) 이에 대해서는 조현우, 『한국문화교육을 위한 고전문학 활용 방안: 상호문화이해를 위한 ‘집집’ 찾기』, 『국어국문학 연구와 실용』, 제54회 한국언어문화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자료집, 한국언어문화회, 2013, 124~134쪽 참조.

6) 황인교,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1집,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06, 207~227쪽; 『한국문화 및 한국문학 교육 연구』, 『이중언어학』 47집, 이중언어학회, 2011, 553~589쪽; 최정순, 『한국어교육의 현황 및 발전 방향: 언어교육에서 문화교육까지 문화 간 의사소통적 접근법을 제안하며』, 『한국고전연구』 2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3, 5~28쪽;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교육의 등가적 통합』, 『언어와 문화』 1집,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4, 63~81쪽.

한국어교육과에서 문화교육을 전담하는 교수자를 배치하고 한국어교육과 정에서도 한국문화 관련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것⁷⁾도 이러한 추세와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짧은 시간에 이론 팔목할 만한 성과이지만 보나 나온 교육의 결실을 위해 밝아온 자취를 점검하고 나아갈 행로를 모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 문화의 개념이 이러한진대 이 개념의 기본적인 속성은 지극히 가치중립적이다. 심지어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쉽사리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부정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랜 세월을 거쳐 특정 공동체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형성되었다면 그것 역시 ‘문화’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기에 ‘한국’이라는 종족적 단어가 붙을 경우 ‘한국문화’라는 합성어는 다분히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내포하면서 저것과 이것을 가르는 우열의 논리가 개입하게 된다. 한국문화교육의 所用을 위해 집필된, 비교적 최근에 출간된 아래의 사례들을 검토해 보자.

[1] 우리 옷은 천연염색을 지향하는 자연의 색깔을 추구하여 오래 입어도 질리지 않으며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옷이다. 자연의 은은함이 그대로 베어나는 파스텔조의 색상은 사람의 품위를 살려주기도 한다.……한국 민족은 자신을 낮추는 것을 미덕으로 알았고 상대방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는 무한한 배려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 넉넉한 마음은 의복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그래서 긴 치마는 짧게, 폭이 넓은 치마는 폭을 좁게 고

7) 필자가 근무하는 충북대학교 국어교육과에는 교육대학원과 일반대학원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과정이 따로 개설되어 있는데 <한국문화교육론연구>·<한국현대문화연구>와 같이 한국문화교육을 목표로 하는 과목이 적지 않게 마련되어 있다.

치거나, 저고리의 옷고름은 매듭단추로, 그리고 남성들의 바지 대님 또한 매듭으로 처리하였다.⁸⁾

[2] 한국인은 진취적인 기상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열심히'와 '빨리빨리'로 상징되는 열정의 민족이다. 근대화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한국인은 시간을 아끼고 생산적으로 쓰는 경향이 생겨서 이러한 특징은 급하고 열정적이며 부지런하고 성취지향적인 한국인상으로 정착되었다. 한국인의 효율성에 바탕을 둔 시간관은 쿼 서비스와 같은 배달 문화나 빨리빨리의 문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⁹⁾

[3] 조선 후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이후의 시기로, 이때부터 한국사회에는 근대의식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하였다. 한국보다 앞서 근대사회를 만들어 나간 서양은, 새롭게 성장한 시민 계급이 나서서 구질서를 허물고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자본주의를 제도화하며 근대화를 이끌었다. 한국에서도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근대사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조선 후기 사회에서 근대의식의 성장과 사회의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다.¹⁰⁾

한복에 대해 설명하는 [1]은 하나의 문장 안에서, 혹은 문장과 문장 사이에 요구되는 논리적인 인과 관계가 상당 정도 결여되어 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은 전근대의 한복을 말하는 것인지 근대 이후의 한복을 말하는 것인지, 혹은 통칭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전자라면 전근대 시기에는 염색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 당연한 말일 테고, 후자라면 실상과 어긋난다. 또한 '자연의 색깔을 추구하는 것'과 '오래 입어도 질리지 않는 것' 사

8) 조재윤 외,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길라잡이』, 박이정, 2009, 148~149쪽.

9) 김해옥,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읽기』, 에피스테메, 2010, 136쪽.

10) 박성준 외, 『외국인을 위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 한국문화사, 2011, 68쪽.

이에는 별다른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은 그 다음 문장이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미덕이고, ‘상대방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는 것’이 무한한 배려의 마음인 것은 어느 정도 수궁이 가지만 이는 철저히 개인의 문제이지 민족이라는 집단 전체의 특성은 분명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 넉넉한 마음이 의복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검증할 수 없는,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다소 무책임한 기술이다. 그렇다면 ‘긴 치마는 짧게, 폭이 넓은 치마는 폭을 좁게’ 고쳐 입는 현대의 한국 민족은 전근대의 한국 민족에 비해 마음이 넉넉하지 못한 것인가? 또한 길이나 폭이 짧거나 좁은 전통 의상을 보유한 민족은 그 심성이 넉넉하지 못한 민족인가? 쇠말적인 부분에 천착했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전통적 의복의 폭과 민족적 심성의 그것을 등가화시키는 것은 필자가 보기에 특별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설명은 [2]에도 보인다. ‘진취적인 기상과 성실성’은 앞서 [1]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철저히 개인의 문제로 수렴될 뿐 집단이 공유하는 특정한 성향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열심히’와 ‘빨리빨리’는 중첩되는 부분도 없진 않지만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끝까지’라는 ‘열심히’의 사전적 정의를 감안하면 괴리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근대화의 경제, 사회적 발전’은 문법에 맞지 않으며, ‘시간을 아끼고 생산적으로 쓰는’ 한국인의 비중이 그렇지 않은 비중보다 현저하게 높은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한국인상’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다시 한번 사전을 빌자면, “효율성”은 “들인 대가나 노력에 비하여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능이나 성질”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인식 하에서 ‘퀵 서비스와 같은 배달 문화나 ‘빨리빨리’로 대변되는 문화 현상이 한국의 현실에서 초래한 수많은 병폐들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

[3]은 외국인을 위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린다는 취지하에 집필되

었다. 역시 문제는 교수내용의 적합성에 있을 터, 여기서 조선 후기를 소개하는 윗글의 내용이 다분히 근대주의적이며, 서구 중심적이라는 사실은 굳이 거론하지 않도록 한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의 주된 목적은 무엇보다도 그 내용의 正誤를 세세하게 따지는 일보다 그 내용이 한국을 이해해야만 하는 그들의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얼마나 봉사할 수 있을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고조선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일국사적인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는 위와 같은 방식은 “너무나 고상하고, 점잖고, 권위적이고, 체계적이어서”¹¹⁾ 그들의 필요에 기여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현대 한국인에게서 두드러지게 포착되는, 그리하여 외국인에게 이례적인 사례로 비추어질 법한 반일 감정의 연원이 저 멀리 삼국시대까지 소급될 수 있을 정도로 오래되었다거나 근대 이후의 식민지 경험으로 인해 한국인의 민족의식이 더욱 공고해 졌다는 등의 사실들이 저들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느낀 실제의 사례들과 보다 부합할 것이다.¹²⁾

상기한 방식의 설명들이 갖는 가장 큰 한계는 한국문화라고 지칭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 고유하고 우수한 것들만을 소개해야 한다는 강박의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짙게 깔려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통적인 것=우수한 것’이라는 도식이 암묵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강박 하에서는 우리의 의복에 대한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다양한 이견

11) 서영빈, 『한국문화교육, 그 이론과 실제의 거리: 중국에서의 경우』,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자료집』,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학술대회, 2009, 23쪽. 물론 논자가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교재는 필자의 그것과 다르지만, 현재의 한국문화교재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해당 표현을 인용하였다.

12) 물론, 필자가 문제시하는 이러한 혐의들이 한국문화교육의 현장에서 상기한 교재들이 담당해 온 일정한 역할이나 유용성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한국문화교육을 담당해 온 기존의 성과들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점차 그 비중이 높아져가는 현실에 발맞추어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일이다.

들이라든지, ‘빨리빨리’라는 용어가 문화가 되어 버린 서글픈 역사라든지, 조속한 근대화로 인해 깊어지게 된 삶의 멍에 같은 것들이 함께 고려되기 어렵다.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대로,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으로 기술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문화가 얼마나 고유하고 우수한 문화인가를 가르쳐야 한다는 믿음은 그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다.¹³⁾ 중국인 학습자들이 그다지 공부하고 싶지 않은 영역으로 “한국의 양반 문화, 한국 역사상의 유명 인물, 한국의 고궁이나 유적지, 한국 근·현대 문학작품 등”을 꼽았다¹⁴⁾는 것은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② 위에서 살펴본 한국문화교육의 일반적 흐름은 그것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온 문학교육, 그 중에서도 고전문학교육의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의 점증과 더불어 관련 논의들 역시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지만 텍스트의 선정에서부터 교수되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한국문화’를 전달해야 한다는 강박과 그러한 우수성이 고전문학 작품에 담보되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으로부터 그다지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교육의 현장에서 고전시가 작품을 활용한, 얼마 되지 않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 나라의 세시풍속은 그 나라의 정신의 소산이며 문화의 소산이므로 그 민족고유의 미풍양속이라 할 수 있다.……농사와 관련한 세시풍속은 달

13) 조현우, 앞의 논문, 127쪽.

14) 진강려, 『한국어 강독 수업에서의 문화교육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9집 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2, 259쪽.

을 중심으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고전문학 중 고려속요 <동동>과 조선조 가시문학인 <농가월령가>에서 세시풍속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동동>에서는 세시풍속의 각 절기적 특징이戀情으로 잘 형상화되어 있어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 민속문화를 잘 제시해 줄 수 있는 효율적 문학텍스트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 하겠다.¹⁵⁾

[2] 개인 성장 측면에서는 한국인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작품을 통해 배울 수 있는데, 고난과 갈등을 웃음을 통해 해소하고 있는 흥부전의 해학을 학습한다거나 시조에서 물아일체, 자연 친화 사상을 학습함으로써 독특한 한국적 가치관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한국인의 사상을 배우기 위해서는 흥부전의 우애, 심청전의 효 사상, 시조의 충, 효, 예를 학습함으로써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불선 사상의 세계를 엿볼 수 있게 된다.¹⁶⁾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문화교육의 현장에서 고전문학을 활용하고자 할 때 ‘외국인’이라는 학습 대상자의 특수성과 그들이 ‘한국’으로 견인한 뚜렷한 목적을 심분 감안해야 한다면 상기한 두 가지 논의들에는 좀 더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 듯하다. 먼저, <동동>을 주된 재료로 삼고 있는 [1]의 경우 텍스트에 제시된 세시풍속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유래하였다는, 그리하여 그것의 기원을 굳이 따지자면 우리만의 고유한 것으로 자리매김하기는 어렵다는 점¹⁷⁾을 논외로 하더라도

15) 양민정, 『외국인을 위한 고전시가 활용의 한국어/문학/문화의 통합적 교육: <동동>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29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8, 248쪽.

16) 홍혜준, 『고전 작품을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연구』, 『國語教育學研究』 21집, 국어교육학회, 2004, 539쪽.

17) 조성산, 『18세기 후반~19세기 중반 조선(朝鮮) 세시풍속서 서술의 특징과 의미: ‘중국(中國)’ 인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60집, 조선시대사학회, 2012, 183~221쪽; 진경환, 『세시기(歲時記) 서술의 방식과 의미: 『동국세시기』의 ‘중국 근거 찾기’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53집, 민족어문학회, 2006, 57~82쪽.

도, 현대의 한국인들에게조차 낯설기만 한 다양한 절기의 풍속들을 외국인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왜 그들이 한국문화를 배워야 하는가나 무엇을 위해 한국문화교육이 필요한가?”¹⁸⁾와 같은 필수적인 질문들을 별반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2] 역시 마찬가지이다. 논자는 한국문화교육과 고전작품의 연계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시조’ 갈래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 시조 전체를 ‘물아일체, 자연 친화 사상’으로 등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한국적’이라는 한정사에 부합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뿐만 아니라 제시한 텍스트에서 추출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전근대와 근대 사이의 분명한 경계를 무화시키고 있는, ‘한국인’이라는 집합명사에 모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도 장담하기 어렵다.¹⁹⁾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결과들에는 외국인을 ‘한국인화 시켜야 할 동화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불식 간에 개재되어 있다. 소수의 전공자들을 제외한다면 현대의 한국인들에게도 익숙치 않은 전근대 시기의 세시풍속과 시조를 왜 가르치려 하는가? 여기에는 시간적인 단절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간적인 동일성을 기준으로 전통적인 것이 곧 한국적인 것

18) 최정순(2013), 앞의 논문, 16쪽.

19) 이러한 점들은 설화나 고전소설을 활용한 논의들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일례로, 한국문화교육에서 고전문학을 활용할 경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갈래가 설화인데, 이는 아마도 ‘전통’이라는 단어에 내포된 원형, 고유, 심상 등의 단어들에 설화에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 하에서 도출된 결론들의 대부분이 ‘효 사상’, ‘토착적 세계관’, ‘상호의존적 천지관’ 등을 한국적인 문화로 거론하고 있는데(이성희, 『“단군신화”의 한국어 교재 수용 양상 고찰 및 수록 기준 모색』, 『정신문화연구』 33집 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261~287쪽.); 안미영, 『한국어 교육에서 설화 문학을 활용한 문화 교육: ‘선녀와 나무꾼’을 통해 본 한국의 문화』, 『정신문화연구』 31집 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107~130쪽.) 이를 한국적 특수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의문이거나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며, 따라서 한국을 알려면 전통을 알아야 한다는 식의 자민족 중심주의가 알게 모르게 작동하고 있다. <동동>의 여성 화자를 통해 한국적 여성성을, 일부 시조 작품에 보이는 자연에의 침잠을 통해 한국적 가치관을 읽어냈곤 했던 것도 이러한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것은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인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이다. 거듭 말하건대, 한국문화교육에서 고전문학 작품이 유의미한 요소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를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3. 상호문화교육과 고전시가: ‘시집살이’ 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최근 십수년간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유입, 그로 인한 이질적인 문화들의 공존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한국사회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다양한 갈등의 양상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점진적인 해결의 과정에서 ‘다문화주의’가 감당한 역할은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불행한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타인종과 타민족에 대해 배타적이었던 한국사회가 인종·민족 사이의 ‘차이’를 서서히 인정해 가고 있는 것²⁰⁾은 (물론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다문화주의(교육)의 확산과 수용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해결된 문제들보다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더 많은 것도 엄연한 사실이기에 다문화주의의 장단을 적실하게 파악하여 또 다른 선택지를 마련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상호

20) 황정미, 「다문화 담론의 확산과 ‘국민’의 경계에 대한 인식 변화」, 『재외한인연구』 24집, 재외한인학회, 2011, 25~26쪽.

문화주의(교육)²¹⁾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압달라 프렛세이는 오늘날 문화적 다양성을 다루는 두 가지 모형으로, 앵글로색슨의 다문화 모형과 프랑스어권의 상호문화적 모형을 들고서는 후자에 근거하여 전자를 비판한다.²²⁾ 필자가 이해한 범주 내에서 그 핵심적 내용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주의는 집단과 집단 사이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할 것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집단 간의 관계를 원활히 하는 문제나 사회의 평화로운 공존을 저해하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집단과 집단 간의 차이만을 인정함으로써 모든 것을 집단의 문제로 환원하게 되면 집단과 집단 사이에 경계선을 긋게 되고, 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의 원인들은 그저 ‘다르다’는 원인으로 귀착되기 마련이다. 주지하듯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타자의 행위가 지닌 외부적 상황관계와 내면적 모색, 선택의 얽힘을 파악하고 그것을 다시 자신의 삶 속에 수용하는 일일 터,²³⁾ 이질적인 문화로 인한 타자와의 갈등을 그저 ‘다른’ 탓으로 돌린다면 이를 통해 이해의 기반이 마련되기는 분명 어렵다.

둘째, 개인을 집단에 예속시킴으로써 사회적 유동성을 제한하게 된다. 그에 따르면, 한 명의 개체적 인간을 인종 혹은 민족에 따라 그가 속한 집단 전체의 특성에 비추어 이해하게 되면 끊임없이 변하기 마련인 집단의 유동성을 포착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한번 이민 왔다고 해서 평생 ‘이민

21) 이에 대해서는 조현우, 앞의 논문, 127~130쪽; 최정순(2013), 앞의 논문, 18~21쪽; 장한업, 『프랑스의 상호문화교육과 미국의 다문화교육의 비교연구』, 『프랑스어문교육』 32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09, 105~121쪽.

22) 이상 다문화 모형에 대한 비판은 압달라 프렛세이 저, 장한업 역, 『유럽의 상호문화교육』, 한울, 2011, 50~56쪽.

23) 김홍규, 『고전문학 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한국 고전문학과 비평의 성찰』,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312쪽의 구절을 문맥에 맞게 일부 수정하였다.

자나 ‘이민 2세’의 범주 속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개인을 原종족이나 原민족과 같이 혈연적 동질성에 의거하여 분류하는 것은 ‘혈연적 동질성이 문화적 동질성으로 연계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큼 부적절하다. 한 집단에 속한다는 사실로부터 그 사람의 행동과 특징을 바로 유추해낼 수는 없는데, 한 개인은 동시에 여러 집단에 속하기도 하고 규범과 참조기준이 다른 다양한 하위문화를 향유하므로 그 정체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에 대해 그가 대안으로 주장하는 것이 프랑스어권의 ‘상호문화주의’이다. 상호문화주의에서 ‘상호’라는 접두사는 집단, 개인, 정체성 간의 상호작용을 관련짓고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다원문화(pluricultural), 다문화(multicultural)라는 용어가 나와 남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 머문다면, 상호문화는 (그 다름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일련의 절차를 중시한다.²⁴⁾ 다시 말해, 다문화교육이 문화적 다양성을 소개하고 권장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면 상호문화교육은 사회적 다수와 소수들 사이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²⁵⁾ “따라서 상호문화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외국어 교육은 ‘이상적인 원어민’을 모범으로 간주하고 목표언어를 정복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지 않고, “한 인간의 언어적 경험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부터 사회 전체의 언어를 거쳐 다른 민족의 언어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확장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이를 통해 목표 언어의 문화를 학습하고 이를 자신의 문화적 맥락과 비교하고 이해하며, 타문화 출신의 사람과 만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전략을 알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나아가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24) 압달라 프렛세이, 앞의 책, 67쪽.

25) 최정순(2013), 앞의 논문, 17쪽.

역량, 상호문화 간의 오해나 대립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타문화에 대한 선입견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²⁶⁾

필자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문화교육을 위해 ‘시집살이’와 관련된 고전시가 작품들이 나름의 유용성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 ‘상호문화교육’의 방법을 원용하고자 한다. 물론 다문화교육의 방법론 하에서도 시집살이의 문제는 간간이 언급되어 왔지만, 이를 한국 특유의 가족제도로만 소개하고 마는 것은 한국인 시대 식구들과 외국인 며느리 사이에 존재하는 분명한 거리를 좁히는 데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역시 중요한 것은 사회적 다수[시대 식구]와 소수들[결혼이주여성] 사이의 관계 개선에 고전시가 작품이 얼마마한 효용을 미칠 수 있는가에 있을 터, 아래의 작품을 살펴보는 데에서 시작하도록 하자.

[1] 식어마님 며느라기 낮바 벽 바홀 구루지 마오 / 빗에 바든 며느린가
갑세 쳐오 며느린가 밤나모 서근 들결에 휘초리 나니 궂치 알살피신 식어바
님 벗 뵈 섯동궂치 되종고신 식어마님 三年 겨론 망태에 새 송곳 부리궂치
썩족흐신 식누으님 당피 가론 밧티 돌피나 니궂치 식노란 윗곳 궂튼 피쑹
누는 아들 흐나 두고 / 건 밧티 멧곳 궂튼 며느리를 어디를 낮바 흐시노고

[2] 시집오든 사흘만에 / 가사구경 하라하고 / 아랫도장 내려가서 / 은전
하나 만지다가 / 은전은 깨트렸네 / 고초같은 시아바씨 / 청뿔들 걸았으며
/ 아래왔는 저미느라 / 너그집에 가그들랑 / 은전하나 물어다고 / 회초같은
시어머니 / 방문왈각 열터리며 / 아래왔는 저미느라 / 너그집에 가거들랑
/ 노비전답 다파나마 / 은전하나 물어다고 / 앵도같은 시누씨는 / 청에통통
다니면서 / 아래왔는 저각씨야 / 너그집에 가거들랑 / 말매소매 다파나마

26) 조현우, 앞의 논문, 128쪽.

/ 은전하나 물어내게 / 흥글흥글 맛동서는 / 이리가며 흥글흥글 / 저리가며
 흥글흥글 / 흥글흥글 야단일세²⁷⁾

[3] 잠아잠아 오지마라 / 요내눈에 오는잠은 / 말도많고 흥도 많다 / 잠오
 는눈을 / 쑥잡아 빼여 / 탕주나무에다 걸어놓고 / 들며보고 날며보니 / 탕주
 나무도 꺾박꺾박²⁸⁾

적당한 나이에 시집을 간 새색시가 [1]의 주인공이다. 그런데 그녀는 행복하지 못하고, 말씨도 상당히 거칠다. 그 이유는 시집살이의 고통에서 기인한바, 작품 전체는 며느리의 독백으로 이루어지며 까닭 없이 며느리를 미워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도화선이다. 며느리는 자신도 한 집안의 귀여운 딸로서 자라 떳떳하게 혼사를 치르고 시집온 인격적 구성원이지만, 빚 대신 데려오거나 돈 주고 사온 노예적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집 식구들의 냉대가 지속되어 온 데 대해 그녀의 원망이 폭발하고, 그들의 인정머리 없는 모습을 신랄하게 조롱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²⁹⁾

시집온 지 사흘 만에 은전을 깨뜨린 며느리의 사연은 [2]에 보인다. 지금의 시선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았던 전근대시기에 은전은 집안의 값진 살림살이였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은전을 물어내라고 채근하는 일은 시집온 지 사흘 밖에 되지 않는 며느리가 감당하기엔 쉽지 않다. 더구나 자기와 같은 처지인 동서는, 아마도 이 일로 자신의 지위가 보다 굳건해 질 것이라는 이유에서

27) 임동권, 『한국민요집성 I』, 집문당, 1961, 128쪽.

28) 임동권, 위의 책, 123쪽.

29) 김홍규, 『육망의 인간학』,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 자료집』, 한국연구재단, 2010, 24쪽.

‘홍글홍글 야단’이다. ‘잠’을 의인화하여 ‘오지마라’고 당부하는 [3]의 주인공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가내노동에 어지간히 시달린 듯하다. 잠 오는 눈을 잡아 빼서 탕주나무에 걸었다는 상상력도 기발하지만, 그 탕주나무마저 ‘뚝뚝뚝뚝한다’는 구절은 고단한 여성의 삶에 대해 연민과 동정을 자아낸다.

김혜진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를 통해 시집살이 노래의 수용이 해당 노래의 화자와 공감을 이끌어냄으로써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타인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³⁰⁾ 경청할 만한 견해이고, 본 논문 역시 이에 기댄 바 크지만, 상호문화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본 논의는 다음과 같은 재고의 여지를 갖는다.

논자는 시집살이 노래의 수용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얻게 되는 효과로 ①타자와의 동일시, ②타자 체험의 자기화, ③타자 체험의 객관화를 들었는데, 이때의 타자란 작품의 시적 화자를 의미한다. 부연하면, 결혼이주여성들은 시집살이 노래를 수용하면서 시집살이에 시달리는 작중 화자의 독백에 자신을 투사하고, 시적 화자의 체험에 상상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시적 화자의 상황을 관조하여 자신의 경험과 가치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의 수용자들이 도달하게 된 감상의 면면들을 살펴보자면 시대 식구들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우리의 목표에 이와 같은 방식이 얼마나 적합할지 의문이 든다.

[1] 처음부터 시집살이 힘든 줄은 어머니 때부터 다 아는 사실이었지만 저의 국가(중국)에서는 남녀평등을 많이 선호하는데 한국에서는 지금도 옛

30) 김혜진, 『시집살이 노래 수용에서 공감의 양상 연구: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국어교육연구』 26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0, 145~176쪽.

전통이 이어져서 남존여비 사상이 너무 심하고 다가가기 힘든 시어머니와의 관계 한 발짝 다가가면 다가간 만큼 힘드니 노래 가사처럼 병어리 삼년 소경 삼년이 저에게는 너무 힘든 과제예요.³¹⁾ (중국인)

[2] 제 상각에 이 며느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하고 싶어요.³²⁾ (베트남인)

[3]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불합리적인 표현에 절대 순종이 아닌 자기 표현을 정확히 표현하며 의젓한 자세로 살아가는 모습은 많은 여성들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시댁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며느리처럼 행동하고 싶습니다.³³⁾ (중국인)

母문화와 목표문화의 차이를 인지시키는 데 주된 목적을 두는 다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시집살이는 그저 ‘다른’ 문화일 뿐이다. 그런데 상기한 작품을 통해 작중 화자의 처지에 수용자 자신을 대입시키게 되면 다수가 부리는 소수에 대한 위계와 권위, 횡포 등의 면모들은 더욱더 부각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작품 [1]의 화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면 며느리를 구박하는 작품 속 시댁 식구들 역시 자신의 시댁 식구들과 동일시된다. 따라서 다수와 소수의 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하는 폭만큼 점점 더 멀어지게 마련이다. 이는 [2]와 [3]을 보더라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는데, 시댁 식구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1차적으로 느낀 것은 ‘나도 똑같이 하고 싶다.’는 적대적인 감정의 연장이다. 이는 곧 타자와의 동일시 내지는 타자 체험의 자기화와 같은

31) 김혜진, 앞의 논문, 158쪽.

32) 위의 논문, 163쪽.

33) 위의 논문, 같은 쪽.

일반적인 서정시의 독법으로는 이해의 기반이 마련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작품을 소개할 때 다수와 소수의 관계는 개선의 전망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해당 작품들에 나오는 어휘들을 세세하게 조사하여 이 작품의 전편을 완전하게 이해시키는 것은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고려해야 하는 선택적 사항이다. 단, 상호문화교육의 관점에서 이 작품을 감상할 때 빠져서는 안 될 부분은 매 작품들의 시적 화자들이 바로 학습자 자신의 시어머니이기도 하다는 것, 그래서 자신의 옆에 있는 시어머니 역시 과거의 어디쯤인가에 자신과 유사한 경험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일이다. 물론 이러한 언급이 현재의 불합리한 가족관계를 합리화하지는 것은 아니며, 시어머니 역시 시집살이의 고통을 경험했으니 며느리 또한 그러한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의 폭력적인 의미는 더욱 아니다. 다만, 시어머니 역시 가부장제라는 잘못된 제도의 희생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면, 그리하여 자신이 연민하고 동정했던 작품 속 화자가 자신의 시어머니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녀에 대한 좀 더 넓은 이해의 단서가 마련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나 더, 필자는 이와 같은 접근방식이 사회적 위계 질서에서 다수에 속하는 이들에게도 병행될 때 보다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다문화교육이든 상호문화교육이든 그것이 보다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내국인에 대한 교육 역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에 대한 의식은 전무하다시피하다. 만약 시집살이 노래를 시어머니에게 들려준다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작품 속 주인공이 과거의 자신이자 현재의 며느리인데, 자신들이 지기에 버거웠던 짐이라면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지는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킨다면, 그네들에게 (자라 온 환경과 문화가 다른) 며느리에 대한 이

해를 구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한 일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는다.

4. 결론

[1] 마을 이장 조씨[조만숙] 고향은 중국 선양. 1995년 이 마을로 시집 온 결혼이주 여성이다. 조씨는 남편과 함께 주민들에게 설선물을 돌리느라 찬 공기를 마시며 마을 곳곳을 누볐다. 이날 남편 천봉만 씨(53)는 오토바이에 선물을 가득 싣고 따로 마을을 다니며 아내 일손을 거들었다.……조씨도 친 인척 30여 명이 모여 제사를 지내는 만큼 올 설엔 50만여 원으로 장도 충분히 봐왔다. 시집온 지 어느덧 19년이 되면서 제삿상 준비도 이제 어려운 일은 아니다.

[2] 한국에서 14번째 설 명절을 맞이하는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 호지완 씨(34)에게도 설은 특별하다. 그는 지난해까진 매년 명절 때마다 남편 고향인 전북 익산으로 내려갔지만 올해 설 연휴는 서울에서 지내며 한식요리 공부에 전념할 계획이다.……호지완 씨가 한국에 처음 온 건 2005년이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설에 대해 그는 "끔찍했다"고 회상했다. 베트남 설은 왁자지껄 노는 축제분위기인 데 비해 한국 설은 지나치게 정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어가 서툴러 얘기를 나눌 사람도 없었다. 그랬던 호지완 씨가 한국 설에 대한 의미를 차츰 깨달아갈 수 있었던 건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 덕분이었다고 한다. 자신이 말이 서툰데도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고 배려를 많이 해줬기 때문이다.³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특별한 설맞이’라는 위 특집기사에는 한국인

34) <MK뉴스> 2014.01.29일자 기사. [1]과 [2]는 같은 기사를 서술의 편의를 위해 분리한 것임.

의 시선으로 결혼이주여성을 바라보는 특유의 문제점도 여전하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나름의 방법도 함께 녹아들어 있어 흥미롭다. 두 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을 소개하면서 위의 기사가 주목하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한국사람다워졌는가?’에 있다. 설 선물을 돌리면서 마을 곳곳을 누비는 모습, 제사상 준비도 어려움 없이 해 내는 모습, 한식요리 공부에 전념하는 모습 등 기사에 소개된 그녀들은 여느 한국인과 다를 것이 없다. 대신 그녀 주변의 한국사람들도 알 필요가 있는 그녀들의 모국문화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다. 이주민이 정주민의 문화에 얼마나 동화되었는가가 기사화될 수 있는 주된 기준인 것이다. 그럼에도 위 기사가 나름의 소중함을 확보하는 대목은 마지막에 있다. ‘이해’라는 것은 말이 서툴러도 가능하다든 것, 따라서 어떤 측면에서는 보다 선행해야 할 것이 말보다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연수·박지영,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경험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0집, 2010, 269~297쪽.
- 김해옥,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읽기』, 에피스테메, 2010, 1~141쪽.
- 김혜진, 「다문화 시대의 문학과 대중문화: 시집살이 노래 수용에서 공감의 상상 연구: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국어교육연구』 26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0.
- 김흥규, 「고전문학 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한국 고전문학과 비평의 성찰』,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42~53쪽.
- _____, 『육망의 인간학』,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 자료집』, 한국연구재단, 2010.
- 박선옥, 『여성결혼이민자 수기(手記)에 나타난 문화 변용 상상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11집,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1, 107~139쪽.
- 박성준 외, 『외국인을 위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 한국문화사, 2011, 1~236쪽.
- 서영빈, 「한국문화교육, 그 이론과 실제의 거리: 중국에서의 경우」,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자료집』,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학술대회, 2009.
- 안미영, 「한국어 교육에서 설화 문학을 활용한 문화 교육: '선녀와 나무꾼'을 통해 본 한국의 문화」, 『정신문화연구』 31-4,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107~130쪽.
- 압달라 프렛세이 저, 장한엽 역, 『유럽의 상호문화교육』, 한울, 2011, 1~183쪽.
- 양민정, 「외국인을 위한 고전시가 활용의 한국어/문학/문화의 통합적 교육: <動動>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29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8, 237~261쪽.
- 이성희, 「『단군신화』의 한국어 교재 수용 상상 고찰 및 수록 기준 모색」, 『정신문화연구』 33권 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261~288쪽.
- 이정원, 「<심청전>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한국고전연구』 2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3, 21~46쪽.
- 임동권, 『한국민요집성 I』, 집문당, 1961, 1~668쪽.
- 장한엽, 『프랑스의 상호문화교육과 미국의 다문화교육의 비교연구』, 『프랑스어문교육』 32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09, 105~121쪽.

- 조성산, 「18세기 후반~19세기 중반 조선(朝鮮) 세시풍속서 서술의 특징과 의의: ‘중국(中國)’ 인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60집, 조선시대사학회, 2012, 183~221쪽.
- 조재운 외,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길라잡이』, 박이정, 2009, 148~149쪽.
- 조현우, 「한국문화교육을 위한 고전문학 활용 방안: 상호문화이해를 위한 ‘접점’ 찾기」, 『국어국문학 연구와 실용』, 제54회 한국언어문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자료집, 한국언어문학회, 2013, 124~134쪽.
- 진강려, 「한국어 강독 수업에서의 문화교육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9-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2.
- 진경환, 「세시기(歲時記) 서술의 방식과 의미: 『동국세시기』의 ‘중국 근거 찾기’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53집, 민족어문화회, 2006, 57~82쪽.
- 최정순,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교육의 등가적 통합」, 『언어와 문화』 1집,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4, 63~81쪽.
- _____, 「한국어교육의 현황 및 발전 방향: 언어교육에서 문화교육까지 문화 간의 사소통적 접근법을 제안하며」, 『한국고전연구』 2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3, 6~29쪽.
- 최준식, 「문화를 가르친다는 것은?」, 『한국언어문화학』 9-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2, 275쪽.
- 홍혜준, 「고전 작품을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연구」, 『國語教育學研究』 21집, 국어교육학회, 2004, 529-555쪽.
- 황인교, 「한국문화 및 한국문학 교육 연구」, 『이중언어학』 47집, 이중언어학회, 2011, 553~589쪽.
- _____,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1집,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06, 207~227쪽.
- 황정미, 「다문화 담론의 확산과 ‘국민’의 경계에 대한 인식 변화」, 『재외한인연구』 24집, 재외한인학회, 2011, 7~42쪽.

ABSTRACT

Usefulness of the classical poetry work for Korean culture education
- focused on Immigrant women and 'Sijibari' song

Ha, Yun-seop

In this paper, we are going to talk about that classic poetry works that are related to the "marriage life" by setting the potential listener marriage migrant women can function in the material that is meaningful in the field of Korean culture education. The problem of marriage life, and in that it is present progressive form yet, this is, after you showed me the old genesis of the family system South Korea rather only a timely basis, that marriage living in marriage migrant women, This is because it is determined to be appropriate in order to get the end of the agreement and understand them. Accordingly, Chapter 2, in order to critically examined the status of Korean Studies, to complement this, we have proposed a "Cross-cultural training" as an alternative to such. In Section 3, we explore the contacts can be classic poem that is associated with the "marriage life" as the text of the cross-cultural education at a glance the work, classic poetry and works Korean culture education meet through this.

Key Words Korean culture education, Classic poetry, cross-cultural education, immigrant women, marriage life

논문투고일 : 2014. 5. 2
심사완료일 : 2014. 5. 26
게재확정일 : 2014. 6. 2

